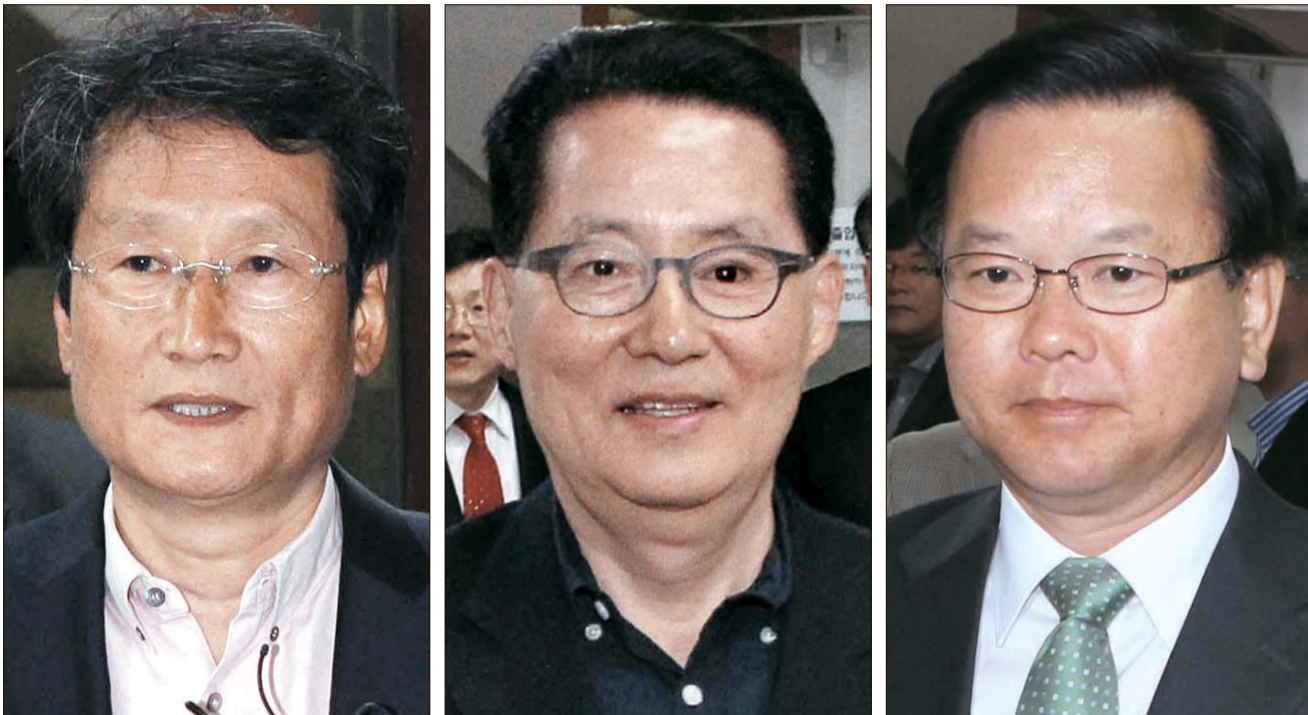


문성근 '20일짜리 대행' ... 민주당 6월 9일 새 대표 선출



민주당 문성근·박지원·김부겸 최고위원(왼쪽부터)이 15일 저녁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심야 최고위원회의서 합의

민주당이 4·11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사퇴한 한명숙 전 대표의 자리를 누가 이어받을지를 놓고 일요일인 15일 심야까지 격론을 벌인 끝에 문성근 대표대행 체제를 일단 채택했다. 그러나 문 대표대행 체제는 약 20일간의 시한부에 그칠 전망이다.

5월 4일 19대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새 원내대표를 뽑고, 이후론 신임 원내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를 발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6월 9일로 확정된 임시전당대회까지 유지되며, 이

5월 4일까지 문 대행이 당 운영 새 원내대표 뽑아 한 달간 비대위

노무현계 vs 손학규·박지원

당권 둘러싼 대선주자 갈등 봉합

날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할 새 대표를 뽑게 된다.

민주당 선출직 최고위원 6명 중 총선 전후 사퇴한 한 전 대표와 박영선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문성근·박지원·이인영·김부겸 최고위원 등은 15일 오후 8시부터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6월 9일 전당대회까지 두 달간 누가 당을 대표하느냐 놓고 내용을 밟아왔다. 당헌·당규상으로는 지난 1월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에 이어 2위를 한 문성근 최고위원이 대표권한대행을 맡는 게 당연하다.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다수 득표자, 원내대표 순으로 대표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져 가면서 상황이 꼬였다.

당 주류인 노무현계에선 당헌·당규에 따라 2위 득표자인 문 최고위원이 대표권한대행을 맡아 임시전당대회 때까지 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실패에 대해선 반성한다"면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선 "지금 같은 엄중한 시기에 지도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 당헌·당규를 따를 것"이라고 했다. 대표권한대행을 맡을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구민주당 출신이 중심이 된 비(非)노무현계에선 노무현계 핵심인 문재인 상임고문의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강화시켜 주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반발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총선 패배에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아무리 두 달 동안이지만 물러나지 않고 지도부를 이끈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일괄 사퇴 후 비대위를 구성해 전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계를 견제하고 '새관'을 짜겠다는 의도다.

당내 대선주자들 가운데 손학규 상임고문이 비대위 체제를 적극 지지하며 박 최고위원의 뒤를 밟았다. 손 고문 측 핵심 관계자는 "대표가 친노에서 친노로 바뀌면 국민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총선 패배의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문 최고위원이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노무현계와 비노무현계의 입장이 '20일 대표대행 체제 유지 후 비대위 결성'이라는 어정쩡한 형태로 절충된 것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문성근) 대표대행 체제로 임시전당대회 전까지 쪽 가기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 충분치 않다는 데로 의견이 모였다"며 결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표대행은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당무를 책임질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홍보위원장 등의 인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마저 나머지 최고위원들의 견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독주할 수 있는 구도는 아니다. 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를 다시 열어 박선숙 사무총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노무현계와 비노무현계가 일단 이견을 봉합하긴 했지만 진짜 세 대결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5월 4일 신임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새 권력지형이 보다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The Only, The Best
www.skku.edu

세상을 뜨는 따뜻한 혁신,
성균관대학교가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 30인치 그래핀을 개발한 과학적 성과에서
국내 MBA 중 유일한 세계 66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평가 1위
세계 수준의 Global Ph.D. Fellowship 사립대학 1위 성과까지!
삼성과 함께 세계 초일류로 비상하는 대학, 성균관대학교
기술과 감성이 소통하는 따뜻한 혁신을 기대해 주십시오.

2013학년도 교수 초빙
4월 3일(화) ~ 5월 3일(목)
<http://faculty.skku.edu>

성균관대학교
SUNG KYUNKWAN UNIVERSITY

박근혜 대선 브레인 '위스콘신 4총사'

같은 대학서 비슷한 때 경제학 박사 복지·대기업 대선 공약 만들기 주도

새누리당에서 당정 관계와 대선 공약을 주도할 브레인 그룹으로 '위스콘신 4인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 3선에 성공한 최경환(경북 경산-청도)·유승민(대구 동을) 의원과 처음 국회에 입성한 안종범(비례대표)·강석훈(서울 서초) 당선인이 그들이다. 이들은 19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 미국 위스콘신대(메디슨 캠퍼스)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공통점이 있다. 주립대인 위스콘신대는 학비·물가가 싸고 경제학과의 수준이 높아 예전부터 국내 경제관료나 경제학 전공자들의 인기 유학지였다.

오랫동안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참모 역할을 해오면서 호흡을 맞춰 온 이들은 새누리당이 성장 우선의 'MB 노믹스'에서 벗어나 분배와 복지에도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의 박근혜계 핵심인 최·유 의원은 2007년 대선 경선에 이어 이번에도 박근혜 캠프의 핵심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가족행복 5대 약속'을 19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입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두 의원이 핵심 당직을 맡아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성균관대 교수 출신인 안종범 당선인은 지난해 초 박 위원장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입안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는 "새 정강·정책에 명시한 경제민주화 노선은 다음 국회에서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재벌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



업의 중소기업 지원금 제한, 지배주주 일가의 위법 행위 엄단 등이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성신여대 교수 출신으로 경제민주화 추진 인사로 평가받는 강석훈 당선인은 지난해 박 위원장과 경제공부 모임을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당선인은 "현 정부에서 국가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은 커져도 국민 개개인이 오히려 빈곤해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와 개인이 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무상복지와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안 당선인은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무상 포퓰리즘과 달리 국민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